

오전(1부) 대방동 7시

오전(2부) 7시

주일에배 오전(3부) 10시

오후(4부) 3시

수요일예배 (저녁) 8시30분

서울 교회 02)533-9191

장소 : 강서구 공항대로 376 KBS스포츠월드

오전(1부) 7시

오전(2부) 10시

주일에배 오후(3부) 3시

저녁예배 7시

금요일예배 (저녁) 8시

인천 교회 032)763-9191

장소 : 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대한예수교장로회 예수중심교회

2019년 5월 26일 (제1004호)

(서울)서울시 용산구 용산우체국 사서함 37호 Tel. 02)533-9191 Fax. 02)592-9191 (인천)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Tel. 032)763-9191 Fax. 032)575-5730 http://www.jcc.tv(철야 주일 예배 위성 및 인터넷 생방송)



홍 우 겐 럽

아람(我覽)

어느 권사가 몸이 쇠약해져서 나를 찾아 왔다. 나는 안수를 하고 귀신을 쫓아준 후 에 이렇게 말했다. “나를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없으면 세상사 무슨 소용 있겠습니까? 진작 건강을 좀 살렸어야죠. 이제 이 름을 아람으로 바꾸세요. ‘나 아(我), 볼 랴(覽)’. 이제라도 늦지 않았어요. 자신을 돌 보고 살피면 분명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 습니다.”

사실 이 말은 나 자신에게도 하는 말이었 다. 다리를 다쳐 기도원에 있으면서 내가 생각한 것은 ‘나를 일찍 좀 살릴 걸~~’ 하 는 것이었다. 오직 나의 주군이신 예수를 위해 이 한 목숨 바치기로 작정했기에 몸 이 부서지라 뛰며 세계를 누볐다. 지쳐 잠 시라도 쉬려 하면 마음에 가책이 되어 다 시 진군했었다. 그러다 보니 피로가 누적 되고 몸에 무리가 왔다. 성도들에게는 ‘어 느 아버지가 아픈 자식에게 돈 벌어오라고 하겠느냐?’고 말해놓고 정작 나에게는 너 무 인색했다. 고장이 나서야 지난 몇 주간 기도원에서 기도하며 휴식을 가졌다. 늦게 나마 나를 챙기는 것이 교회와 교단과 우 리 성도들을 위한 것이고, 주님을 위한 일 이라고 진단했기 때문이다.

내가 있어야 한다. 내가 건강해야 남도 도 울 수 있고, 내가 가진 게 있어야 나눌 수 있고, 내가 아는 것이 있어야 남도 가르칠 수 있다. 세상의 구심점은 바로 나다. 내가 없으면, 내가 병들면 세상이 바뀔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러니 아람(我覽), 나를 돌아보고 살피고, 채우고, 가꾸고, 투자하 고, 보수해라. 경영은 관리요, 관리는 점검 이니 늘 나를 점검하자. 그리고 나에게 인 색하지 말자. 가장 어리석은 자는 자신에 게 인색한 자다.

그리고 꼭 하고 싶은 말은 ‘우리는 죄’라 는 사실이다. 육체든, 기계든 무리하면 고 장 난다. ‘최선’이라는 말은 집중력을 말하 는 것이지 무리하라는 말은 절대 아니다. 성공과 행복의 근간은 바로 내게 있음을 알고 내 관리에 철저하자.

감사는 방부제, 소독제, 항암제, 성장촉진제다

성경 누가복음에 예수께서 열 명의 문둥 병자를 고쳐주신 사건이 나온다. 그러나 그 중에 찾아와 감사를 표한 문둥병자는 단 한 사람이었다. “한 촌에 들어가시니 문둥병자 열 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예수 선생님이어 우 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가 라사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 이라 하셨더니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나은 것 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 며 돌아와 예수의 발아래 엎드리어 사례 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예수께서 대답 하여 가라사대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 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눅17:12~17).

했던 것 같습니다. 목사가 되고 부흥사로 전국을 누비다 어느 날 교단으로부터 제 명을 당하고, 기성교회로부터 이단시비에 모함과 핍박을 당하며 정말 만물의 찌꺼 기 같은 취급을 당하며 살아왔지만, 난 단 한 번도 원망하거나 불평한 적 없이 오직 감사하며 달려왔습니다. 이 또한 감사한 일입니다.

아픔을 보세요, 요셉을 보세요. 그들이 어 디 감사할 조건이 있었습니까? 쫓겨 다니 고 배신당하고, 노예로 팔리고 억울한 누 명을 쓰고 옥에 갇히며, 차마 형용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한 아픔이요, 요셉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처한 현실에 감사했고, 최선을 다했습니 다. 요셉이 옥에 갇혀서조차 전옥의 총애

도자로 우뚝 세워주신 그 하나님 앞에 내 가 감사 외에 달리 무슨 말을 할 수 있겠 습니까?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절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선으로 갚는 사람, 바로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문제가 있을 때 먼 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바로 하나님 께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범사에 감사하 는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요, 영적 호흡이기에 범 사에 하나님을 시인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분재를 좋아하던 시절 들은 이야기 입니다. 나무에도 암이 있다는 겁니다. ‘아 니, 도대체 어떤 나무가 암에 걸린답니 까?’ 하고 질문했더니 가시가 있는 나무



“나는 내 평생 범사에 감사하며 살았다.”

나머지 아홉은 고침 받은 사실에 행재한 듯 기뻐했을 뿐이다. 문둥병을 고쳐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은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감사는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기억하는 것, 이것 이 신앙생활의 기초다.

목사님은 수요일예배를 통하여 ‘나는 범사 에 감사하며 살아왔다’고 고백하셨다. “내가 예수를 만나고 처음 들은 말씀이 고 름도전서 14장 17절, ‘너는 감사를 잘하 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 세움을 받 지 못하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를 처음 만나고 성령 받고 방언기도에 심취 하여 성전이 떠나가라 부르짖어 기도하다 잠든 중에 하나님께서 천둥치는 소리로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네, 여러 가지로 미 흡한 나였지만 정말 하나님께 감사는 잘

를 받아 제반 사무를 맡게 된 장면을 보면 요셉의 감사가 어느 경지인지 잘 알 수 있 습니다. 신앙생활에 문제가 생기고 되는 꼬라지가 없게 되는 것은 내 입술에 감사 가 떠났기 때문입니다. 원망, 불평은 마귀 를 부르는 짓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 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다 광야에서 고꾸 라져 죽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나는 부 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하고는 아예 말조 차 섞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 는다는 사람들이 왜 안 된다는 생각과 말 로 시간낭비 합니까? 나는 오직 감사입니 다.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오직 감사, 감사입니다. 생각해보세요. 농사꾼의 아 들로 태어나 별 볼 일 없던 나를 하나님 의 종으로 삼아주시고 능력에 능력을 더 하사 전 세계를 누비며 복음을 전하는 전

라 합니다. 무릎을 치지 않을 수 없었죠. 식물도 가시가 있으면 암이 걸리기 쉽다 니..., 생각이 깊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감사는 방부제요, 소독제요, 항암제요, 성 장촉진제’라고 외치는 겁니다. 불평, 불만, 원망을 당장 그치고 범사에 감사하는 말 로 여러분의 인생을 새로 만들어가기 바 랍니다. 인생은 내가 만드는 겁니다. 내 생 각과 말로 내 인생을 디자인하는 겁니다. 감사하는 사람의 삶은 결코 핏절치 않습 니다. 풍성합니다. 감사의 조건이 더욱 넘 쳐납니다.”

범사에 감사하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 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살 전5:18).

한은택 목사

henry8829@naver.com

수요일예배

매주 수요일 저녁 8시 30분 KBS88체육관(화곡동)
문의: 02. 533. 9191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약1:20~25)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말라

100년 된 나무를 자르는 데는 10분도 채 안 걸립니다. 평생 공들인 탑을 무너트리는 것도 한 순간입니다.

충간소음을 참지 못해 뒷집에 찾아가 뭉쓸 짓을 한 사람들, 운전할 때 끼어들었다고 화가 나서 달려가 그 차를 들이박거나 앞질러 가로막다가 사고를 내는 사람들, 형제간에 혹은 부부간에, 더는 부모와 자식 간에 말다툼하다가 화를 못 참아 집에 불을 지르거나 상대를 죽이는 자들... 다 공든 탑을 무너트린 것입니다. 그레 놓고 후회해봐야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격이고,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됩니다.

분노(忿怒), 다른 말로 ‘화’라는 것이 본시 이런 겁니다. 성경에는 “분은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거니와 투기 앞해야 누가 서리요”(잠27:4)라고 말씀하셨고,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분하여 하는 자는 범죄함이 많으니라”(잠29:22)고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 샘플이 바로 가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열납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열납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그 후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창4:5~8). 가인은 동생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께 받았으나 자신의 제사는 열납하지 않자 화가 나서 동생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래서

온 천하를 다스리는 자보다 나를 다스리는 자가 더 위대하다

평생 되는 꼴이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분노하여 그를 죽이려고 혈안이 된 일도 그렇습니다. 결국 다윗이 아니라 자신의 말로가 비참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일점일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진대, 그 하신 말씀인즉 “모든 혈기 있는 자가 일체로 망하고 사람도 진토로 돌아가리라”(욥34:15)고 하셨고, “내가 의인과 악인을 네게서 끊을터이므로 내 칼을 집에서 빼어 무릇 혈기 있는 자를 남에서 북까지 치리니 무릇 혈기 있는 자는 나 여호와와 내 칼을 집에서 빼어낸 줄을 알찌라 같이 다시 꽃혀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겔21:4~5)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공든 탑도 무너집니다. 공든 탑이 무너지지 않게 하는 방법은 계속 공을 들이는 방법 외에 없습니다. 살다 보면 화가 날 때가 있지요. 사람인데 평생 화내지 않고 살 수는 없지요. 그러나 화나는 중에도 자신을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즉 마음을 다스릴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노하기를 더디 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

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잠16:32), “노하기를 더디 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잠19:11),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 노를 억제하느니라”(잠29:11)며 화가 날 때 자신을 통제하는 것이 지혜라고 거듭 말씀하십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자제력의 부재가 인생을 송두리째 망가트리기 때문입니다. 자제력 부재현상은 사고의 원인입니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여 말라 행악에 치우칠 뿐이라”(시37:8).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나를 통제하고 자제할 수 있을까요? 얼마 전 기도원에 내려가 있을 때

보니까 옥토를 만드는데는 법이 있습니다. 먼저는 흙에서 돌을 골라내는 것이고, 돌이 너무 많다 싶으면 그 위에 좋은 흙을 많이 덮어버리니까 바로 옥토가 됩니다. 좋은 흙을 덮듯이 성령으로 나를 덮으면 내가 옥토가 됩니다. 성령의 열매가 바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갈5:22~23)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우리 안에 맺힌다는 것은 곧 예수님의 성품, 신성에 이룬다는 것이기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예수님은 자기를 죽이려는 자들 앞에서도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 같이 계셨고, 하나님의 아들인 자기를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조롱하고 모욕하는 자들 앞에서조차 맞받아치지 않으시고 끝까지 참으셨습니다(히12:2). 그래서 결국 승리하셨고, 당신의 뜻을 이루신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이 이들에게 분노하여 열두 영의 천사를 불러서(마26:53) 그들을 처단하고 십자가에서 보란 듯이 내려오셨더라

면 우리의 구원은 무산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혈기가 왕성한 사람이었으나(행9:1) 성령의 능력으로 옛사람이 벗어지고 새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애매한 핍박과 환난과 모함에도 참고 이겨냈고, 항상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옥중에서도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 ‘항상 기뻐하라’ 한 그의 편지가 그의 변화를 여실히 증명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칼 나간다 총 나간다’ 할 정도로 화를 잘 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으니 혈기가 사라지고 온유한 자가 됩니다. 제 얼굴에서 사나움이 없어지고, 제 마음에 노가 사라집니다.

예수님의 본성은 온유함입니다.



총회장 이초석 목사

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마11:29). 그 예수님은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도 하셨습니다(마5:5), 또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이로다”(시37:11)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온유’란 따뜻할 온(溫), 부드러울 유(柔)입니다. 양지에 꽃이 먼저 피고, 부드러운 곳에 사람이 모여드는 것일진대 온유야말로 참 지혜가 아니겠습니까? 제가 자주 가는 갈비탕집에 사람이 많이 오는 이유는 갈비를 오래 끓여서 부드럽기 때문이랍니다.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는다고 하셨으니(잠11:30), 따뜻하고 부드러운 자에게 사람이 몰리는 법, 곧 온유한 자가 지혜로운 자가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지혜가 제일’이라고 말씀합니다(잠4:7). 지혜를 가르쳐드릴까요? 대화하다가, 어떤 일을 하다가 화가 나고, 이것이 다툼으로 발전될 소지가 있걸랑 그 자리를 피하세요. 성경은 “다투는 시 작은 방축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

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잠17:14)고 하셨습니다. 괜히 순간 욱해서 살인하고, 불내고, 이혼하고, 사포 내보야 나만 손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잠21:19)고까지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 사람 둘이 살아봐야 방축에서 물이 새서 다 쓸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의 지혜는 화를 잘 내는 자와는 애당초 동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같이 있다 보면 달게 되거든요.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찌니 그 행위를 본받아서 네 영혼을 울무에 빠질까 두려움이니라”(잠22:24~25). 여러분, 온유한 자를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목사들도 성도들을 대할 때 온유함으로 대해야 하고, 권면할 때도 온유함으로 해야 합니다(딤후2:24~25). 또한 아내들도 그 행위를 보

쉬이분을 내는 것은 스스로 무덤을 파는 것이다

고 안 믿는 남편이 ‘나도 우리 마누라 믿는 예수를 믿어볼까?’라고 할 수 있게끔 온유함으로 가정을 이끌어야 합니다(벧전3:1~4). 그리고 혹시 분이 났더라도 화가 지기 전에는 서로 화해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귀가 틈탈 수 있기 때문입니다(엡4:26~27).

내 인생은 내가 관리해야 합니다. 그것의 근본은 마음을 다스리는 것입니다(잠4:23). 괜히 화내서 다 된 밥에 코 빠트리는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잘 나가다 사고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온유한 자가 되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주인공이 됩시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 하며 성내기도 더디 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약1:19~20). 할렐루야!

전화 한 통화로!



당신도 세계를
복음화 할 수 있다!

ARS 060-700-0688

구제 및 선교 후원금

1379-01-001903

농협

695001-01-122494

국민은행

예금주: 예수중심교회

:: 객원컬럼 ::

:: 오늘의 메시지 ::

하나님이 주신 믿음

성경은 신념이 아니라 신앙을 주는 말씀이다. 성경을 읽고서 ‘내가 이렇게 정치하면 되겠다’ 해서 그 말씀이 정치의 성공을 보장해주지 않는다. 성경은 정치를 위해 기록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성경을 읽고 ‘이렇게 돈을 벌면 되겠구나!’ 해서 도전했다가 망할 수도 있다. 성경은 물질이나 명예가 아니라 믿음을 주기 위해 기록되었기 때문이다. 믿음은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으며, 믿음은 능치 못함이 없다. 믿음은 하나님의 수단이요, 하나님의 지혜인 것이다.

사람들은 자신의 지혜를 세상의 수단으로 생각한다. 달팽이는 집을 지고 다니면서 황새가 오면 쪽 들어가 버린다. 그 속에 들어가면 황새가 잡지 못할 것이라고 안심한다. 그러나 황새는 달팽이집채 먹어 버린다. 이처럼 사람들이 달팽이가 껍질을 지고 다니듯 자신이 알고 있는 좁은 세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달팽이의 사고에서 벗어나라고 믿음을 주셨다. 신앙은 좁디좁은 문화를 초월할 수 있는 엄청난 지혜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자연과학을 초월하는 것이다. 자연과학이 오히려 무지와 신비로 정죄하는 것에, 무지가 아님을 증명하는 능력을 믿음이라 말한다. 그러나 세상 법칙에 길들여진 자연인들에게는 성경 말씀이 너무나 비현실적이고 비과학적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용납되지 못했다. 과학적 사고방식과 두

뇌를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현장을 보고도 믿지 못하며, 그 사실을 전하는 자들을 허풍쟁이 취급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의 말씀은 이성을 초월하여 신뢰하는 믿음이 되어야만 한다. 이성은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있어서 가장 방해되는 요소이다. 하나님의 약속은 움직이지 않는 사람, 순종하지 않는 사람에게서 아무 효력이 없다. 유도탄이 발사되지 않았을 때에는 유도장치가 작동되지 않지만, 유도탄이 발사대로부터 출발하기만 하면 유도장치가 작동하기 시작한다. 하나님의 약속도 마치 유도장치와 같아서 순종하기 시작할 때 역사하기 시작한다. 자기 이성과의 투쟁에서 성공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똑똑한 사람보다 믿음 있는 자를 원하신다. 교회는 똑똑한 사람보다 믿음 있는 자들로 가득 차야만 한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것을 움직일 권리가 있다. 하나님의 것을 완전히 소유할 능력이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바보 취급 할지라도 세상의 방법이나 신념에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신뢰하고 그 신앙으로 살아야 한다.

인간이 세상에 태어나서 구주를 만날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신기한 일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요11:40).

신기류 목사

abba7777@naver.com

:: To Be Succeeded ::

가장 아름다운 헌신

어릴 적 엄마는 늘 바쁘셨다. 그 시절 어머니들이 대개 그러했듯이 엄마 또한 6남매가 있는 우리 집 살림에, 장남이셨던 아버지의 8남매 동생들, 시골에 계신 할머니까지 몇 살림을 하며 쫓아다니셨다. ‘왜 우리 엄마는 저렇게 쉴 새 없이 일을 하셔야 할까?’ 하면서도 혼자 일가친척 손님들 다 맞는 명절 때도 굶은 말 한마디 없이 시원스럽게 음식을 장만해내시고, 그나마 짬이 나면 틈틈이 앉아서 책을 읽으시던 엄마를 보며, 말하진 않았지만 그런 엄마가 무척 존경스러웠다.

그런데 이보다 더 강렬하게 내 기억에 남아있는 엄마의 모습은, 기도하시던 뒷모습이다. 새벽에 우리 도시락을 싸실 때도, 다른 일을 하실 때도 늘 기도하시고 찬송하시며 눈물지으시고, 시시때때로 내 머리에 손 얹고 축복 기도해주시는가 하면, 당신 영혼이 다 듣는다고 주무실 때도 말씀 테이프를 틀어놓고 주무시곤 했다. 양쪽 일가친척 다 합쳐 예수 믿는 사람 하나 없었던 우리 집안에 하나님은 엄마를 한 알의 밀알로 삼으셔서 기도하고 전도케 하셨다. 때론 핍박받고 손해를 보기도 했지만 지금은 양쪽 가문과 각 가정에 기도와 전도의 열매가 맺혀가는 것

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참으로 놀랍다. 연세가 드신 지금은 내가 무슨 힘이 있냐고, 무슨 볼품이 있냐고 하신다. 그러나 우리 형제들은 이미 알고 있다. 엄마의 순교자적 삶이, 기도가, 눈물이 우리와 우리 가문에 예수 생명을 품은 씨앗이 되었음을, 이 땅과 하늘의 축복의 통로가 되었음을 말이다.

초대교회 때 스테반 집사의 순교를 시작으로 수 세기를 걸친 수많은 순교자들의 피와 선교사들의 수고와 희생, 그리고 그 시대, 이 시대 어머님들을 비롯한 여러 믿음의 선전들의 눈물과 기도가 지금의 우리를 만들었다는 사실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 보이지 않는 하늘의 영광을 가까이 바라보며, 기꺼이 밀알 되어 아낌없이 삶을 내어드리는 그분들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 되기를 원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크신 영광의 예수께서 내 안에 좌정하사 비로소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생명의 전달자가 될 것이기에, 또한 이후 무수히 맺게 하실 열매와 하늘의 영광을 알기에, 우리는 오늘도 세상은 이해할 수 없는 주를 위한 희생과 헌신에 우리의 삶을 쏟는다.

이국진 사모

전도는 사명이다

구세군의 설립자 윌리엄 부스가 젊었을 때의 일이다. 당시 같은 동네에 살던 한 주정뱅이를 안타깝게 여긴 부스는 그를 전도하려고 노력했다. 그는 매일 찾아가서 교회에 나가자고 권면하였지만 주정뱅이는 그저 무시할 뿐이었다. 그렇게 며칠을 거절당하자 부스는 거의 포기 상태에 이르렀고, 그 다음날 길거리에서 주정뱅이와 마주쳤지만 또 한 번 거절당할 것이 두려워 그냥 지나쳤다. 그러자 부스의 뒤에서 주정뱅이가 말했다. “이보슈, 만약 내가 당신이고, 천국이 있다는 확신이 있다면 당신 같이 전도를 쉽게 포기하지는 않겠소! 몇 번 말을 건네서 교회 나가는 사람이 도대체 어디 있겠소? 물건을 팔러오는 사람들도 그것보다는 끈질기오!” 그 말을 듣고 깨달은 부스는 그 이후로 아무리 거절을 당해도 절대 포기하지 않고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

해 끊임없이 노력했다고 한다. 그리스도인에게 전도는 천만번을 강조해도 새롭지 않다. 예수님께서서는 “나는 전도를 위하여 왔노라”(막1:38) 하시며, 제자들에게도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막16:15)고 말씀하셨다. 바울 사도는 자신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은 자”(롬1:1)라고 하였고, 디모데에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딤후4:2)고 권면하였다. 심지어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임이로라”(고전9:16)고 하였다. 이렇듯 전도는 주님의 뜻이요, 엄중한 명령임을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 수 있다. 전도하지 않는 교회는 죽은 교회요, 전도는 교회의 본질임을 잊지 말자.

김상욱 목사

ksw9669@hanmail.net



:: 생명의 말씀 ::

부모님께 호도하자

가정의 달을 맞아 부성애를 나타내는 가시고기와 모성애가 강한 우렁이가 떠오른다. 가시고기는 산란기에 암컷이 알을 낳고 떠나면 수놈은 알이 부화될 때까지 멀리도 가지 않고 먹이도 먹지 않고 지키는데, 알에서 가시고기가 깨어나 아비가 시고기 옆에서 땀흘리며 아비 가시고기는 새끼에게 먹일 게 없어서 자신의 몸을 새끼들에게 먹고 최후를 마친다. 인간으로서 감히 흉내도 내지 못하는 가시고기 아버지의 사랑 이야기다. 가족을 위해 수고하다 조용히 한 세상을 마감하는 아버지들의 함축된 모습을 보여주는 감동적인 드라마 같다. 또 어미 우렁이는 주변에 있는 수많은 천적들로부터 알을 보호하는 방법으로 제 몸속에 알을 낳아 품는다. 제 몸에서 알을 낳으며 새끼들은 어미의 살을 과묵으며 성장한다. 한 점의 살도 남김없이 새끼들에게 먹이로 주고 빈껍데기가 되어 조용히 물에 떠내려간다. 가족을 보호하고 울타리가 되는 아버지의 희생과 살을 깎아 먹이는 어머니의 희생은 어디에서 보상받게 될까? 성경은 ‘네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지만 나이든

부모는 자식들에게 서서히 짐이 되는 존재로 전락하는 듯하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은 인간의 유대가 무너졌기 때문이다. 우리가 인식해야 할 것은 그 뿌리는 식구들 간의 사랑에 있으며, 공동체는 가족에서 시작된다는 것이다. 우리를 위해 당신의 몸을 내어주신 부모님의 사랑에 감사하지도 못하면서 제아무리 크고 훌륭한 일을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부모님께서 가장 바라는 것은 자식들의 얼굴을 보는 것이고, 목소리를 듣는 것이라고 한다. 지금 당장 전화 드려라. 이번 주말에 찾아뵙자. 그리고는 작고 여위신 그분을 힘껏 안아드리며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자. 참으로 슬픈 일이다. 곁에 계실 때엔 깨닫지 못하고 큰 사랑을 알게 되었을 뿐 이미 우리 곁에 계시지 않으니 말이다. 계실 때 호도하자!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출20:12).

임택함 목사

cjcc1004@hanmail.net

:: 청춘, 그 아름다운 이름 ::

:: 참된 깨달음 ::

미리미리

저의 오랜 버킷리스트 중 하나는 부모님과 함께 해외여행을 가는 거였습니다. 혼자서 혹은 친구들과 여러 나라를 다녀왔지만 부모님과 간 적은 없었거든요. 부모님이 더 나이 드시기 전에 함께 다양한 곳을 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계획에 밀려 다음해로, 다음해로 넘기다가 올 초가 되어서야 드디어 비행기 티켓 세 장을 끊게 되었지요.

여행을 가기 몇 달 전, 한 꿈을 꾸었습니다. 비행기를 타려고 인천공항에 갔는데 출발시간 15분 전에 도착해버린 겁니다. 보통은 비행기 출발 2시간 전에 공항에 가서 탑승 수속을 해야 하는데 말이죠. 항공사 전용 카운터는 이미 문이 닫혔고, 셀프 체크인을 하려는데 자꾸 입력을 잘못해서 오류가 났습니다. 1분 1초가 급한지라 지나가는 직원을 붙잡고 사정사정해 겨우 출국장으로 들어갔습니다. 타야 할 비행기의 게이트를 찾던 중 섬뜩한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쩌지, 여행가방을 체크인 기계 옆에 두고 와버렸네.’ 비행기 이륙 시간이 몇 분 안 남았는데 가방을 찾으러 나가면 제시간에 돌아올 수가 없어서 저는 일단 탑승구를 찾기 위해 버리나케 뛰어다녔습니다. 마침내 탑승구에 도착했을 때 마지막으로 탑승하려는 승객

은 대여섯 명. 저는 티켓을 검사하는 직원에게 달려가 지금까지의 상황을 얘기하고, 가방 안에 여권과 티켓이 있으니 그 가방을 찾아올 때까지 제발 5분만, 딱 5분만 더 기다려달라고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직원은 대꾸조차 하지 않은 채 나머지 승객을 태우고 떠났습니다. 결국 저는 비행기를 코앞에서 놓치고 말았지요. 터벅 터벅 출국장 밖으로 나가는 동안 쓰디쓴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대체 왜 가방을 꼼꼼하게 챙기지 않았던 걸까, 대체 왜 2시간 전에 미리 공항에 도착하지 않았던 걸까. 날려버린 항공권과 호텔비는 아까워서 어쩌나 하며 괴로워하다가 꿈에서 깼습니다.

꿈에서 깼는데도 아직 꿈속에서의 후회와 괴로움이 고스란히 마음에 남아있어서 순간 이게 꿈인지 현실인지 헷갈릴 정도였습니다. 꿈이었다는 걸 인지하고 나자 안도의 한숨이 나왔고, 곧바로 무릎을 꿇고 감사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곧 가야 할 부모님과의 여행 준비를 미리미리 잘 해두자 결심했고, 그날의 꿈도 일기에 적었지요.

일기를 쓰다가 한 가지 더 깨달아지는 게 있었습니다. 이것이 단지 타국으로 가는 비행기를 놓친 게 아니라 천국으로 가는

비행기를 놓친 거였다면? 여권도 있고 티켓도 있는데 잠시 어딘가에 두고 와서 눈앞에 있는 천국행 비행기에 탑승할 수 없다면? 애쓰고 노력해서 천국에 쌓아놓은 나의 상급과 집은? 이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사람은 등불이 없어서 처음부터 신앙맛이에 참여하지 못한 처녀들이 아니라, 등도 있고 기름도 있어 등불을 밝히며 신앙맛이에 참여했으나 예수님이 도착하신 딱 그 타이밍에 기름이 떨어져 버린 다섯 처녀입니다.

예수님께선 속히 다시 오시리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날이 당장 오늘은 아닐 거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내일도 아니고요. 물론 이번 주도 아닐 거 같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쉽게 느슨해지곤 합니다. 기도를 쉬게 되고, 회개를 미루게 되고요. 하지만 그날이 오늘이 될지 내일이 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비행기는 놓쳐도 다시 탈 기회가 언제든지 있지만, 천국은 두 번째 기회가 없지요. 하루하루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기도하고, 회개하고, 신실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맞는 자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기름을 미리미리 준비한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신은혜 성도
dopal0203@naver.com

라도 주님 부르시면 가야만 합니다. 아무 것도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심판을 통과하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지옥의 판결을 피하고 영생복락의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행 16:31).

상화평 목사
sanghwapyung@hanmail.net

Good News

2017년도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여성의 평균수명은 85.7세이고 남성은 79.7세, 곧 평균수명이 82.7세로 OECD 국가들의 평균보다 높다고 합니다. 그런데 2030년이 되면 남자는 84.1세가 되고 여자는 90.8세가 되어서 세계 최고의 장수국가 될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있습니다. 여자들 4명 가운데 한 명은 100세를 넘긴다는 이야기입니다.

100세 시대가 도래하고, 그보다 더 긴 세월을 산다고 해도 한번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 살았던 므두셀라도 969세에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죽음은 피해갈 수 없고, 죽음 뒤에는 심판이 있기 때문에 아무런 생각 없이 제멋대로 살아가는 아니 됩니다. 노후를 준비하는 일도 필요하지만 영원한 세상이 있기 때문에 사후를 준비하는 자가 진정으로 지혜로운 자입니다.

노후 준비를 위해서 거주할 집과 돈, 그리고 취미와 친구를 준비하라는 조언도 있지만 시종을 알지 못하는 인생, 오늘날에

라도 주님 부르시면 가야만 합니다. 아무 것도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심판을 통과하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지옥의 판결을 피하고 영생복락의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행 16:31).

상화평 목사
sanghwapyung@hanmail.net

:: 성도간증 ::

직업의식과 사명의식



충청도 두메산골에서 근무하던 경찰 초임 시절, 당시에는 경부선 기차에서 창문을 열고 뛰어내려 자살하는 사건들이 종종 있었다.

어느 날, **역 역무원으로부터 달리는 기차에서 사람이 떨어졌다는 연락을 받고 현장으로 달려가 변사자 신원을 파악하기 위하여 지문을 채취했다. 그것을 지서(파출소) 책상 위에 놓았는데 그만 청소하던 사환이 모르고 지문 채취한 용지를 불태워버렸다.

그날은 비가 억수 같이 내리던 밤이었는데, 한밤중에 경찰서장으로 부터 변사자 신원과 약여부의 전화가 왔기에 즉시 사체 인계받은 **면사무소 소사(사환)의 잠을 깨워 택시를 타고 첩첩산중에 있는 공동묘지에 갔다. 변사자 지문을 다시 찍어 신원을 파악하기 위해서였다.

면사무소 소사는 ‘성명불상자의 묘’라고 나무판의 글씨를 보고 ‘이곳에 변사자를 묻었다’고 했다. 그래서 짐승소리가 으르렁거리는 공동묘지에서 삼으로 묘를 파는데 뒤에서 부스럭 소리만 나도 금방 귀신이 나올 것 같이 두려웠다. 어떻게 봤는지 모르게 묘를 파헤치자 양손이 흙에 덮여 있어 살며시 싸늘한 시체 손을 잡고 한참 동안 만지작만지작 주물렀다. 핏기가 없어 뻣뻣한 손이 하나하나 떨어져 우산에서 내려오는 빗물로 흠에 덮인

손가락을 씻어내고 하나하나 지문을 찍고 얼른 삼으로 흠을 펴서 묻고는 ‘귀신 나온다~’ 하며 정신없이 산을 내려왔다. 한밤중, 그것도 비가 억수처럼 쏟아지는 인적 없는 첩첩산골 공동묘지에서 변사체를 파헤친 일을 뒤돌아보니 그 답력이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다. 지금 생각해보니 직업의식 이상의 것이었다고 생각한다.

총회장 목사님은 사명의식에 대해 자주 말씀하신다. 직업은 먹고 살기 위한 수단이지만, 사명은 목숨을 걸고 행해야 할 임무라며 사명에 부도내지 말라고 하신다. 그때의 그 심정으로 지금 나에게 맡겨진 사명, 장애인 선교를 위해 일하려고 한다. 그 심정이라면 무엇을 못하겠는가!

서울예수중심교회 김수현 장로

기도하는 일

예수님은 배신당하시던 날 밤 제자들에게 놀라운 약속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요14:13~14). 우리가 그분의 뜻에 따라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들어주십니다! 이 말씀은 사람의 변덕을 다 받아주시겠다는 백지 위임장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구하는 것은 ‘확실히 무엇이든지’ 들어주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즉 ‘그 이름과 그 성품에 합당한’ 기도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의 기도는 왜 물리치고, 세리의 가슴을 치는 기도는 왜 받아주셨는지에 대해(눅18:9~14) 깨달음을 안겨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름은 그분의 성품과도 같습니다. 이사야는 메시아를 예언하면서 그분의 이름을 직접 언급하는 대신 메시아의 성품에 대해 설명합니다. “기묘자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사9:6). 하나님이 모세에게 밝히신 “나는 스스로 있는 자”(출3:14)라는 이름도 그분의 이름인 동시에 그분의 영원한 성품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그분의 완전한 성품에 따라 그분의 영광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역에 앞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기도일 것입니다. ‘주님의 전능하심을 인정하는 일’이 기도라면, ‘주님의 영광의 실체를 드러내는 일’이 기도라면, ‘자신까지도 바꿀 수 있는 일’이 기도라면, 저는 기꺼이 몸살이 나도록 기도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일이 많으면 몸이 고되고 몸살 나죠? 몸살 날 지경까지 고된 기도 한번 해 보세요.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더이상 미루지 말고,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을 먼저 기도로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김정옥 전도사

